야스 (255440)

전방 고객사 OLED 투자 재개, 8년 만의 최대 실적 경신

ARIS
더 많은 보고서는 텔레그램 채널로
@ARIS1031

Info

기업탐방 일자	2026.10.19
발간 일자	2026.11.05
투자 의견	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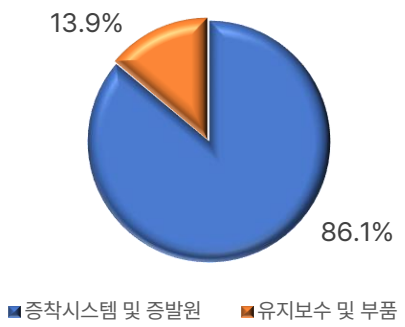
Company Data

시가 총액	1,089억원
발행 주식수	13,058,000주
액면가	500원
외국인 소진율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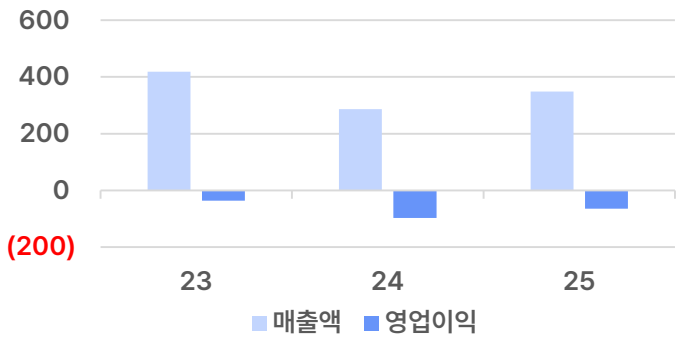
Report Summary

- 2002년 설립. 2017년 코스닥 상장
-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을 위한 증착장비 및 증발원 전문기업
- LGD 의 차세대 OLD 'FLiPP' 기술의 증착기 공급 업체로 주목
- 주요 고객사 설비 투자 확대로 26년 최대 실적 경신할 것
- 2026년 매출액 2,500억원, 영업이익 600억원 수준 전망

매출 비중(연결)



최근 3개년 매출 추이(연결)



자료 : 야스

단위 : 억원

Analyst

이재모
charisma38@naver.com
정민희
b2point0@naver.com

기업 탐방 사진



ARIS
INDEPENDENT
Analysis • Research
Investment • Stock

야스(255440)

기업 개요

야스는 2002년 설립되어 201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주요 사업은 OLED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증착시스템 및 증발원을 개발 및 생산이다. 주요 제품은 대형 OLED 패널용 증착시스템과 중소형 OLED 패널용 증발원이다. 26년 상반기 기준 매출비중은 증착시스템 및 증발원 86.1%, 장비 개조 및 유지 보수 및 부품 등 13.9%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주주는 정광호 등 특수관계인 21.03%, 자사주 8.65%를 보유중이다.

사업의 개요

동사는 OLED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증착장비 및 증발원을 개발 및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증착시스템 및 증발원, 장비 개조 및 유지보수, 부품 판매로 구성된다. OLED 증착기는 OLED 제조 공정 가운데 유리기판에 유기물질을 증착할 때 쓰이는 핵심장비다. 증착이란 진공에서 유기물, 금속 증기를 증발시켜서 패널 기판에 부착시키는 공정이다. 증착원은 챔버 내 진공속에서 도가니에 들어있는 물질을 가열하여 박막 제조 대상 물질을 증발시키는 장치다.

주요 고객사는 LG디스플레이, BOE, CSOT 등 글로벌 OLED 패널 제조업체다. 내수 매출 비중은 9.5%, 해외 수출은 90.5%이며,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이다.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에 따라 장비를 설계 및 제작하는 수주 기반 사업구조이며, 고객사로부터 직접 수주해 납품하는 직판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장비 개조 및 유지보수 및 부품 사업은 기존 공급 장비의 성능 개선, 부품 교체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장비 공급 이후에도 고객사의 생산라인 운영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6년 상반기 기준 Fab1~4 등 4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야스 기업 개요 및 주요 장비

본사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대표이사	정광호
홈페이지	http://www.yasoled.com	종업원수	236명 (2026/06)
설립일	2002/04/11	발행주식수(보통주)	13,058,000주
상장일	2017/09/29		



자료:야스

야스(255440)

OLED 시장의 중대형 전환 본격화, 차세대 증착기술 경쟁력 부각

글로벌 OLED 시장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중심의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노트북과 모니터, TV 등 중대형 IT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FMM(Fine Metal Mask,미세금속마스크) 방식은 대면적 기판 적용 시 열에 의한 마스크 처짐과 정밀도 저하 등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패널 제조업체들은 FMM-Less(마스크리스) 기반 차세대 OLED 공정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의 FLiPP(FMM-Less innovative Pixel Patterning: 미세금속마스크 없이 대면적 기판에 OLED 픽셀을 형성하는 기술) 비전옥스의 ViP(Visionox intelligent Pixelization: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해 RGB 픽셀을 정밀하게 형성하는 기술)등 포토리소소그래피(Photolithography,광식각 기술: 빛을 이용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판 위에 미세한 회로 또는 화소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기반 패터닝 기술이 차세대 OLED 제조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사는 세계 유일의 8세대 이상 대면적 OLED 증착기 및 증발원 양산 경험을 보유한 기업으로 대면적 수평 증착 기술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FLiPP 기술은 기존 WOLED 생산 인프라를 활용한 대면적 증착과 포토리소그래피를 결합한 방식으로 동사의 증착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FLiPP 기술은 기존 FMM 방식 대비 개구율 약 55% 향상, 휘도 1.6배, 수명 2.4배, 소비전력 13% 개선이 가능하다. 향후 해당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에 대면적 OLED 증착장비 수요 확대와 동사의 기술력이 경쟁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FMM 방식 VS 포토리소스그래피 방식

구분	FMM 방식	포토리소그래피 기반 방식
패턴 형성	금속마스크를 통한 선택적 증착	빛과 감광막을 이용한 미세 패터닝
대면적 적용	마스크 처짐 및 변형 문제	마스크 처짐 제약 완화
미세화	마스크 정밀도에 따른 제약	고해상도 구현에 유리
주요 과제	마스크 정렬 및 열변형	공정 복잡도 및 유기물 손상 방지

자료:야스

야스(255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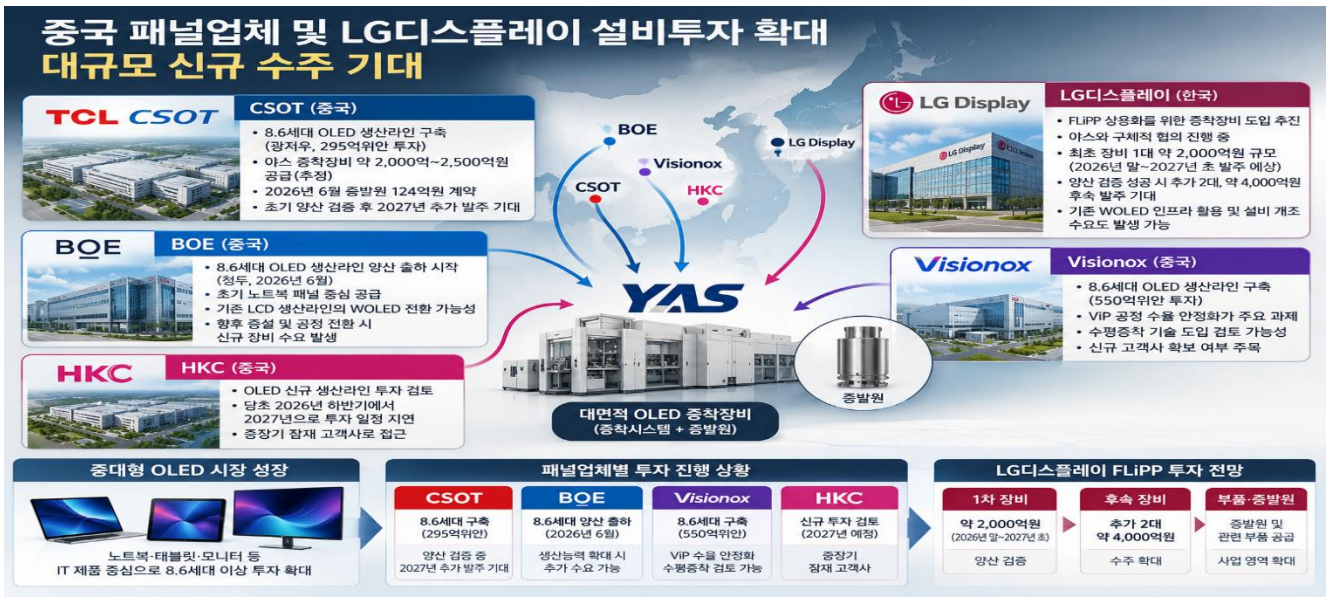
고객사 투자확대, 대규모 신규 수주 기대

중국 주요 패널 업체들은 8.6세대 OLED 생산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설비투자와 기존 생산라인의 공정 전환에 따른 증착장비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고객사 LG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신규 기술 도입에 따른 증착장비 공급을 위해서 동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는 중국의 CSOT에 약 2,000~2,500억원 규모의 증착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6년 6월에는 124억원 규모의 증발원 공급계약도 체결했고, 2027년 추가 증착장비 발주가 기대된다. 비전옥스는 550억 위한 규모의 8.6세대 OLED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ViP 방식의 수율 안정화 과정에서 야스의 수평증착 기술이 대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BOE는 2026년 6월 8.6세대 OLED 생산라인의 양산 출하를 시작했으며, 기존 LCD 생산라인의 WOLED 전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HKC 역시 OLED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중장기 잠재적 고객사로 분류된다.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OLED 기술인 FLiPP 상용화를 위한 증착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LG디스플레이의 세계 최초 WOLED TV 양산에 증착장비를 공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 생산공정에도 주요 장비 공급사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장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초 장비 1대 예상 공급 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초 장비 수주의 시점은 26년말 ~ 27년 초로 예상한다. 초기 장비 공급 이후 양산 검증이 완료되면, 추가 약 2대(4,000억원 규모) 수준으로 후속 수주가 기대되며, 증발원과 관련 부품 공급도 예상된다.

➢ 주요 고객사 설비투자 확대



자료 : 독립리서치 ARIS

야스(255440)

실적 및 재무 상황

① 2026년 매출액 2,500억원, 영업이익 600억원 전망

26년 상반기 매출액 1,199억원, 영업이익 332억원 기록

하반기 중국향 증착장비 제작 진행에 따른 추가 매출 인식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② 2027년 LG디스플레이 향 신규 수주와 중국 패널업체들의 후속 투자로 실적 성장 지속될 전망

최근 3개년 매출 추이(연결 기준)

	2024	2025	2026(E)
매출액	286	348	2,500
영업이익	-97	-65	600
당기순이익	-105	-55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단위 : 억원

체크포인트 및 리스크요인

➢ 신규 사업(반도체 장비 및 부품 사업)

동사는 23년 반도체 장비, 부품, 모듈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최근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사업 영역 다각화 측면에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시장 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분야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체크할 필요성 있다.

동사는 앱솔릭스(SKC 자회사)에 유리기판 미세홀을 측정하는 자동광학검사(AOI) 장비 2대를 연구 개발용으로 공급했다. 파일럿 단계에서 고객사의 요구 품질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유리기판 시장 확대시 동사 장비 공급 등의 가능성도 투자가치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아리스(ARIS) 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